

2019년 4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 시즌 자신감 높아지며 상승 대형 기술주, 제약 바이오 업종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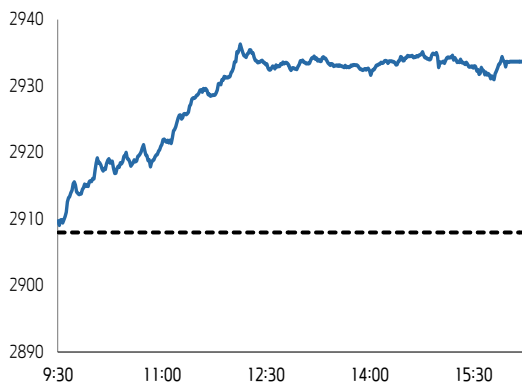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실적 시즌 자신감

미 증시는 코카콜라와 트위터, 센티엔 등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트위터로 인한 기술주, 센티엔으로 인한 제약 바이오 업종 등 관련 업종도 동반 강세를 보이자 상승폭이 확대. 다만, 장 후반 트럼프가 EU 의 관세 부과로 할리데이비슨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보복 하겠다고 언급하자 상승분 일부 반납(다우 +0.55%, 나스닥 +0.32%, S&P500 +0.88%, 러셀 2000 +1.61%)

트위터(+15.64%)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트위터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인터넷 업종 대부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강세. 특히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페이스북(+1.29%), 아마존(+1.93%)이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 상승을 주도. 한편, 아마존은 프랑스 유통업체인 카지노와 미국 백화점 업체인 콜스와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 아마존은 연말까지 카지노를 통해 프랑스 전역 1,000 여 곳에 아마존 고객을 위한 사물함을 설치 한다고 발표. 더불어 콜스(+11.91%)는 7 월까지 아마존에서 구입한 상품을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반환할 수 있다고 발표. 이러한 아마존과의 협력이 여러 오프라인 업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소매유통업체 동반 상승

한편, 헬스케어 업체인 센티엔(+4.64%)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관련 업종도 동반 상승. 최근 헬스케어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리베이트 제도 개편안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Medicare for all' 법률안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제기되며 급락. 이런 가운데 엔템(+2.72%), 바이오젠(+0.61%) 등 이번주 실적 발표하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 상승 주도.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이 S&P500 기업들의 1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세를 유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220.51	+0.17	홍콩恒生	29,963.24	-0.00
KOSDAQ	761.42	-0.08	영국	7,523.07	+0.85
DOW	26,656.39	+0.55	독일	12,235.51	+0.11
NASDAQ	8,120.82	+1.32	프랑스	5,591.69	+0.20
S&P 500	2,933.68	+0.88	스페인	9,527.20	-0.57
상하이종합	3,198.59	-0.51	그리스	776.40	-0.26
일본	22,259.74	+0.19	이탈리아	21,896.84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인터넷, 바이오 업종 강세

트위터(+15.64%)는 2분기 실적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급등 했다. 페이스북(+1.29%), 알파벳(+1.34%), 넷플릭스(+1.21%), 아마존(+1.93%) 등 인터넷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 했다. 더불어 MS(+1.36%)를 비롯한 애플(+1.44%) 등 대형 기술주도 실적 시즌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상승 했다. 한편, 콜스(+11.91%)는 아마존과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TJX(+1.43%), 메이시스(+1.32%) 등 여타 백화점 업체도 동반 상승 했다. 쉐일(+5.79%)은 모건스탠리가 애플과의 합의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 했다. 할리데이비슨(-2.01%)은 부진한 실적 여파로 하락했다.

헬스케어 업체인 센티엔(+4.64%)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엔덤(+2.72%), 바이오젠(+0.61%)을 비롯해 머크(+1.55%), J&J(+1.50%), 버텍스(+4.06%), 유나이티드 헬스(+1.53%) 등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P&G(-2.69%)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텍사스인스트루먼트(+1.24%)와 이베이(+1.44%)는 시간외로 각각 4%, 5%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2%	대형 가치주 ETF(IVE)	+0.71%
에너지섹터 ETF(OIH)	+0.32%	중형 가치주 ETF(IWS)	+0.97%
소매업체 ETF(XRT)	+1.64%	소형 가치주 ETF(IWN)	+1.49%
금융섹터 ETF(XLF)	+0.62%	대형 성장주 ETF(VUG)	+1.08%
기술섹터 ETF(XLK)	+1.09%	중형 성장주 ETF(IWP)	+1.1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85%	소형 성장주 ETF(IWO)	+1.74%
인터넷업체 ETF(FDN)	+1.94%	배당주 ETF(DVY)	+0.70%
리츠업체 ETF(XLRE)	+1.1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4%
주택건설업체 ETF(XHB)	+1.1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8%
바이오섹터 ETF(IBB)	+2.11%	미국 국채 ETF(IEF)	+0.18%
헬스케어 ETF(XLV)	+1.58%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0.42%	물가연동채 ETF(TIP)	+0.23%
반도체 ETF(SMH)	+0.81%	Long/short ETF(BTAL)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7.26	+0.04%	+2.11%	+4.63%
소재	361.14	+0.44%	-0.26%	+6.29%
산업재	663.44	+0.89%	+2.43%	+7.65%
경기소비재	953.40	+1.22%	+1.62%	+7.15%
필수소비재	584.46	-0.11%	+0.12%	+2.33%
헬스케어	1,010.15	+1.60%	-3.14%	-3.68%
금융	455.13	+0.58%	+1.63%	+8.51%
IT	1,383.91	+1.13%	+2.73%	+7.98%
커뮤니케이션	168.60	+0.86%	+2.10%	+6.59%
유틸리티	291.39	+0.37%	-1.33%	-1.89%
부동산	219.99	+1.12%	-2.57%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8%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533 계약)에 힘입어 1.10pt 상승한 288.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1.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호·악재가 겹치며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 요인은 ①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던 미국 1 분기 실적 시즌이 양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②오늘 실적 발표되는 현대차와 포스코 등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①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②미국과의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중국과 EU 까지 반발하며 관련 이슈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 ③할리데이비슨이 EU 의 관세 부과 여파로 실적 둔화를 발표하자 트럼프가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해 향후 미-EU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도 제기된 점, ④코카콜라 CEO 가 컨퍼런스 콜에서 2019 년 매크로 환경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한 점도 부담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둔화

3 월 미국 신규 주택판매는 전월(66.2 만건)이나 예상치(64.5 만건)을 상회한 69 만 2 천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주택 재고 또한 6.1 개월에서 6.0 개월로 감소 했다. 다만 전년 동월 5.3 개월 보다는 높다.

4 월 리치몬드 제조업지수는 전월(10) 보다 크게 위축된 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9→-2), 고용지수(23→18) 등이 하락을 주도 했다.

4 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7.2)는 물론 예상치(-6.9)를 하회한 -7.9 로 발표되었다. 이를 감안 향후 소비 둔화 가능성이 높아져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에 이어 EU 또한 반발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었다. 더 나아가 사우디와 UAE 가 이란의 공급량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증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신규주택매매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 여파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은 부담이다. 더불어 트럼프가 EU 의 관세 부과에 따른 할리 데이비스 실적 둔화를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주장한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파운드화는 보수당이 당 규약을 고쳐 6 월 안에 메이 총리를 사임하게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 미국과 EU 간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부담이 되었다. 한편,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65 배)을 하회한 2.51 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45.2%)보다 증가한 47.7%를 기록하는 등 해외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중국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4%, 철근도 1.2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6.30	+1.14	+4.31	Dollar Index	97.586	+0.31	+0.56
브렌트유	74.51	+0.63	+4.68	EUR/USD	1.1223	-0.30	-0.51
금	1,273.20	-0.34	-1.40	USD/JPY	111.88	-0.05	-0.11
은	14,865	-1.28	-1.31	GBP/USD	1.2937	-0.35	-0.85
알루미늄	1,866.00	-0.05	+0.16	USD/CHF	1.0202	+0.47	+1.21
전기동	6,407.00	-1.07	-1.19	AUD/USD	0.7099	-0.49	-1.06
아연	2,748.00	-0.69	-6.15	USD/CAD	1.3432	+0.64	+0.61
옥수수	360.25	-0.89	-3.03	USD/BRL	3.9168	-0.50	+1.16
밀	445.00	+0.74	-3.94	USD/CNH	6.7295	+0.26	+0.25
대두	875.50	-1.71	-4.05	USD/KRW	1141.80	+0.03	+0.54
커피	93.25	+0.43	-0.69	USD/KRW NDF1M	1141.74	+0.17	+0.4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67	-2.17	-2.36	스페인	1.113	+4.80	+3.00
한국	1.922	-1.30	-1.00	포르투갈	1.198	+3.50	+0.60
일본	-0.028	+0.30	-0.60	그리스	3.309	+0.60	+1.30
독일	0.041	+1.60	-2.50	이탈리아	2.673	+7.20	+8.10